

## 강령

우리는  
1. 교육의 자주성 확립과 교육민주화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  
1. 교육의 주체자로서 학부모의 교육권 확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을 위해 노력한다.  
1. 자녀들이 민주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 풍토를 조성한다.  
1. 민주·자주·통일을 지향하는 여러 단체와 연대한다.

## 학부모신문

학부모의 올바른 교육  
참여가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바탕이 됩니다.

발행인: 김완자 발행일: 매월 5일 발행처: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 6가 314 당일빌딩 301호 전화: 전국 02-675-9068 (FAX: 02-675-9068, 천리안 ID HAKBUMO)  
서울 02-634-6508 02-634-4359 (FAX: 02-634-4359) 충주 0441-42-1217 군산 0654-42-5310 부산 051-247-1795 (FAX: 051-246-1628) 전주 0652-231-6242 인천 032-525-8342 광주 062-526-6992 (FAX: 062-529-1552) 마창 0551-45-0341 (FAX: 0551-48-6264) 대구 053-781-3911 동해 0394-33-7784 이리 0653-856-0340 울산 0522-46-0677 여천 0662-84-5116

## 청주학부모회 창립대회

### 올바른 교육개혁에 앞장 서겠다

지난 7월 18일 청주YWCA에서는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청주지회 창립대회가 열렸다.

올 4월부터 가칭 '올바른 교육을 위한 학부모회'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시작한 청주지회는 그동안 어린이날 잔치 및 두 번의 준비모임을 갖고 우리

의 교육현실과 학부모 모임에 대한 필요성 등에 대한 토론 및 강연회를 갖기도 했다.

이날 창립대회에서 김완자 회장은 축사를 통해 "학부모운동이 단순한 자원봉사활동에서 그치지 말고 끊임없는 자기계발과 프로의식을 갖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활동해 줄 것"을

당부했다. 청주지회 이재관회장은 창립선언문에서 "학부모 각자가 교육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 실천해야만 우리의 아이들을 살릴 수 있으며 교육개혁 또한 앞당길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이날 행사에는 청주지회의 창립을 축하하는 시인 도종환씨의 '진짜 어

머니 아버지들'이란 축시 낭독과 윤구병(본회 자문위원, 충북대) 교수의 격려사가 있었다. 청주지회의 창립으로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는 5개지부 14개지회로 늘게 되었다.

앞으로 청주지회를 위해 일해줄 임원진은 다음과 같다. 이재관(회장) 남상이(부회장) 신인순(사무, 간사) 박금숙(총무) 백영기(홍보, 출판) 김응자(조직) 구미영(교육부)

## 학교운영위원회 공청회 열려

지난 7월 11일 종로성당에서는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가 주최한 학교운영위원회의 올바른 정착을 위한 공청회 '학부모의 민주적 학교참여와 학교운영위원회'가 있었다.

지금까지의 육성화나 어머니회 등의 학부모 모임은 부족한 학교재정 및 교사활동에 대한 지원활동에 그치면서 학부모의

민주적 학교참여를 가로막아왔다. 따라서 96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될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학부모들의 관심이 매우 크다.

이러한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학부모들의 관심을 입증하듯 이날 공청회에는 많은 학부모들이 참여하여 활발한 토론을 했다. (3면 참조)

## 전국 학부모회 '95 여름연수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전국 여름연수가 8월 10, 11일 이틀동안 종로성당에서 있을 예정이다.

이번 연수에서는 2학기부터 학교 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 본회에 대한 홍보와 회원모집에 힘쓰고 교육국을 중심으로 하는 상담실 및 모니터교육 등 95년 하반기 사업 승인을 받는다. 또 전국 조직으로서 틀을

다지기 위한 조직개편(정책위원회 신설, 회의체계 개편 등)에 대해서도 제안할 예정이다.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하여 오성숙(전국 사무처장)씨의 강연과 지회들의 사례발표(마산, 관동, 청주), 상반기 평가를 한다.

또한 부모들이 연수를 갖는 동안 아이들에 대해서는 서울 시내 고궁기행도 마련한다.



진짜 어머니 아버지들

교육에 대한 적극적 관심과 참여가 우리의 아이들을 살릴 수 있다

주요 기사	3면	학교운영위원회
	4면	종합생활기록부-자원봉사
	5면	자녀 성교육
	7면	토요학교를 마치고

축하합니다

## 참교육을 위한 청주학부모회 창립



이 땅에 진짜 어버이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토록 찾던 푸른 하늘 눈동자 가득 넘치고

그 속으로 깃을 치며 날아가는 새떼같은 아이들의

눈부신 하늘 담고 있는 이들 있습니다

주소: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 353-7

전화: (0431)52-9541



## 사설

### 예비교사들의 여름학교

무더운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보충수업이다, 과외다 하여 여전히 힘들고 바쁜 중고생들을 위해 아주 참신한 청소년 여름학교가 열리고 있다. 서울시내 7개대학 사범대학생 4백여명이 텅빈 대학교정을 이용해 다양하고 이색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해 입시교육에 주눅 든 청소년들의 어깨를 펴주고 있다. 제목만으로도 숨통이 트인다. '거꾸로 보는 수학의 세계' '풍물로 배우는 우리 민족' '역사 속의 서울탐방' '역사속의 인물이 되어 발표하기' '환경교실' '함께 사는 남과 여' 등이다. 학생 2명당 교사 1명에 입시부담에서 벗어나 청소년들의 창조력과 잠재력을 펼친다는 점에서 무척 신선한 시도라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학교 밖에는 발령을 준비하고 있는 참신한 예비교사들이 많은데도 학교 안은 창조적 학습경험이 불가능한 과밀학급에 사무적이고 통제위주로 아이들을 지도할 수밖에 없는 무기력한 교사들이 대다수다.

교육의 세계화나 국제경쟁력이 언급되려면,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교사의 충원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교사의 질적·양적 충원이야말로 과밀학급을 해결하고 제대로 된 공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관건이 될 것이다. 그러나, 교사 충원은 교육재정 확보없이 불가능하다. 정부는 5.31교육개혁안에서도 교육재정확보나 교육환경개선에 대한 구체적 청사진보다는 선진국의 바람직한 제도만 도입하려는 인상을 주고 있다. 그러한 제도들의 배경에는 국가의 교육에 대한 투자, 장기적인 교육 청사진, 그리고 뚜렷한 교육철학이 있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국제 경쟁력은 공교육의 내실화, 과밀학급해소에서부터 이루어진다는 점을 예비교사들의 참신한 시도를 보면서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된다.

### 선지원 후추첨제의 비현실성

학생에게 학교선택권을, 학교에는 학생선발권을 준다는 취지의 '선지원 후추첨' 제도가 벌써부터 뼈저리게 다가온다.

내년부터 실시될 예정인 이 제도는 특정지역 주민들의 반발과 시·도교육감들의 시행여부위임요청으로 실시되기도 전에 교육개혁 전반에 걸쳐 중대한 타격을 몰고 올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앞서 전국 시·도 교육감들은 교육부에 선지원 후추첨제도의 실시시기와 방식을 교육감 재량에 맡겨 달라고 건의했다고 한다. 이 방식은 원하는 학교에 지원, 추첨된 학생들에게 학교선택권이 주어지나 추첨에 탈락한 학생들에게는 학교 선택권은 물론 근거리 통학의 권리도 빼앗기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제도의 실시로 기대되는 효과와 부작용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정부가 의도하는 대로 학교 간의 경쟁유도로 명문학교가 육성되고 교육의 질이 높아질 수도 있으나 자립형 사립고와 마찬가지로 교육의 형평성에는 어긋나는 제도가 될 수 있다. 정부가 이루어내야 마땅한 공교육의 내실화를 일부 명문고와 학부모들에게 떠맡긴다면 다수의 학교, 학생보다는 일부학생과 학교에만 권리를 부여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아직은 명문의 기준이 대학 입시율에 근거하고 있고 대학을 갈 수 없는 대다수 학생들을 위한 제도와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문제의 근본적 해결이 아닌 궁여지책으로 지금보다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평준화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여러 안들이 고교입시부활반대 연대모임에서 나온 바 있고 이는 교육현장에 있는 교사와 학부모들의 현실적인 제안이라는 점에서 교육관료나 교육학 교수의 제안보다 우선적으로 반영되어야 했다. 내년에 이 제도가 실시되기에 앞서 좀더 현실적인 현장의 목소리에 정부는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 「교육개혁 선언」교사 탄압 중단하라

서울시 교육청이 교육개혁선언을 한 교사들에게 학교장의 명령을 불복종했다는 이유를 들어 학교장 및 교육장 경고를 하고 대표 4명은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것에 대해 전교조 서울지부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5월 10일 서울지역 현직교사 100명은 '올바른 교육개혁을 위한 서울교사 100인 선언'을 통해 ▲교육예산 5% 확보 ▲교육관계법 개정을 통한 제도 개혁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기구화 ▲대학입시의 개혁과 고교입시부활 반대 ▲학제 개혁 ▲노동조합을 포함한

자주적인 교원단체의 보장 ▲교육개혁 추진기구의 구성 등 7개 항목으로 이미 교육개혁위원회가 5.31교육개혁안 발표를 통해 추진의사를 밝혔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교육개혁이 성공하려면 교사들을 개혁의 주체로 인정해야 한다'며 서울시교육청은 개혁교사에 내려진 징계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 교육개혁 일정을 조속히 발표할 것, 교사들이 제안한 개혁내용을 수용해 줄 것, 교사들이 광범하게 참가하는 교육개혁 추진기구를 구성할 것 등을 정부와 서울시 교육청에 요구했다.

### 경기도 중·고교 건물 42% 사고위험

경기도내 사립 중·고교의 절반가량이 학교 건물 균열과 축대 파손등으로 붕괴위험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이후 지난 7~20일 2백 6개

사립 중·고교와 특수학교 12개교 등 2백 18개교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42.7%인 93개교가 붕괴·누수 등 안전사고 위험을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선복수 지원 후추첨 무산위기

5.31 교육개혁안 중 96년부터 전면 시행키로 한 '선복수지원 후추첨'에 의한 중 고 학생선발의 시행이 연기되거나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울 등 대도시 평준화 지역의 학부모들이 학군광역화를 전제로 한 선지원 후추첨 방식은 학부모와 학생

들에게 학교선택권을 준다는 긍정적인 측면과 원치않는 장거리 통학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부정적인 측면의 의견이 나오고 있다.

전국 시·도 교육감 협의회는 이같은 의견을 교육부에 건의, 받아들여진 것으로 알려졌다.

### 학부모 만평

이숙자



## 바로 서는 학부모 우뚝 서는 아이들



### 우리 참교육학부모회 회원은

- ◎ 교육의 한 주체로서 바로 서고자 합니다.
- ◎ 내 아이만을 위한 이기심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합니다.
- ◎ 우리의 모든 아이들이 밝게 커나갈 교육환경을 만들고자 앞장섭니다.
- ◎ 선생님께 돈봉투 보다는 마음에서 우러나는 존경심을 가집니다.

참교육학부모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 6가 314번지 당일빌딩 301호  
☎: 675-9068, 634-6508 FAX: 634-4359



## ■ 학교운영위원회의 올바른 정착을 위한 공청회

# 민주적 학교참여와 운영위원회

학부모의 우려와 기대 속에 5.31 교육개혁안이 발표되었다. 학부모, 교사, 학생 모두가 교육의 주체로서 민주적인 학교참여로 교육환경을 개선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불안과 우려의 목소리로 바뀌면서 신문지상에서는 벌써 교육개혁안의 실패를 논하고 있다. 이러한 우려 속에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는 7월 11일 종로성당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올바른 정착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다음은 발표된 주제안과 토론문을 정리한 것이다. (참교육 학부모회 사무처장 오성숙, 한국교육개발원연구원 유현숙, 한국교육연구소 연구국장 윤철경, 인간교육실현 학부모연대 김명신, 관악중 교사 한만중)

### 학부모의 학교참여 실상

현재 학교의 학부모 모임은 육성회를 비롯한 6개정도로 모임의 성격은 국가가 공교육재정을 확보할 수 없는 부분을 대신 메꾸어주는 재정적인 역할만 할 뿐 학교참여는 교장과 재력을 갖춘 학부모들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 비민주적인 선출방법으로 내정되어 당선된 학부모는 열악한 교육환경 속에서 공부하는 학생이 안타까워 찬조금 및 회비를 내고 있지만 회비의 사용내역조차 공개적이지 못하고 투명성을 갖지 못해 학부모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학부모의 학교참여는 해방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파행적 형태를 띠고 진행되어 왔다. 그 근본원인은 국가가 공교육 재정을 확보하지 못하고, 학부모의 호주머니로부터 단위학교의 재정을 충당하려는데 있다. 또한 교직사회의 경직성 비민주성도 학부모의 민주적 학교참여를 가로막는 주요인으로 작용한다.

### 외국의 학부모 운동

미국, 영국, 독일 등 서구의 교육환경은 교육주체들이 민주적으로 참여하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자율성 보장으로 우리의 교육환경과 확연히 대비된다. 서구의 학교운영위는 교육정책의 결정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한다. 명예교사, 도서관 운영, 학교자치활동주관 등 자원봉사형태의 활동이 지방자치제의 정착과 함께 지역주민간, 학부모간, 교직원간의 의사소통의 길을 가능케하고 있다.

공통적으로 이들 나라의 기부금 조성은 일시에 학부모로부터 거두어들이는 우리나라의 그것과는 판이하여 몇년, 몇달에 걸쳐 행사를 통해 지역주민과의 유대를 이루어 기금을 조성하며 절대 큰 액수의 기금을 거두어들이는 일이 없이 어른부터 어린이까지 자발적인 행사를 통해 참여를 유도하고 참여의 의의를 깨닫게 한다.

또한 학생의 참여가 학년이 올라갈수

록 많아진다. 이들은 청소년의 기본권을 행사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교육의 주체인 교사와 학부모와 함께 학교전반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 운영위원회 정착 위한 전제들

학교운영위가 민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먼저 학교현장의 민주화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기본원칙으로

첫째, 학교현장의 민주화 작업이다. 교사에게는 그들의 전문성과 자율성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교직계의 비민주적, 권위주의적 풍토를 쇄신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학교운영위 위원은 민주적 절차를 통해 선출되어야 한다.

존중하며 표결하고 교무회의 산하에 학년별 협의회와 학과별협의회를 둘 수 있다.

학생회는 학생들의 대표로 선출된다.

학생회가 의결해야 할 사항으로는 교복선정, 수학여행, 학생들의 학교축제, 체육대회, 특별활동과목 선택 등.

학생회도 역시 학교운영위원회에 참가하고 의결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학교생활에서 학생들의 자치활동을 허용하여 민주주의를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하며 학생들의 의사를 대변할 수 있도록 학생회의 결정사항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비율

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 대표 40%,



셋째, 학부모의 학교운영위 참여가 재정후원과는 무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재정이 확보되어야 한다.

###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기구화

학교운영위원회는 학생, 학부모, 교사 대표와 지역인사, 동문으로 구성하며 그 대표는 학부모회, 교직원회, 학생회에서 민주적 선출절차를 통해 구성, 법제화해야 한다. 이는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 최고의결기구로서의 의무를 강조하고 실행해야 함을 뜻한다.

학부모회가 결정해야 할 사항으로는

학교운영 지원금, 발전기금의 조성, 관리, 집행. 방과후 특별활동 프로그램의 실시여부 및 내용과 비용결정. 학생들의 학교생활평가, 복지에 관한 사항. 지역주민의 교육종류, 문화활동, 학부모의 자원봉사활동의 종류, 방법 선택이다.

교직원회가 의결해야 할 것으로는 교사의 전문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과서 채택, 선택교과 및 프로그램의 선정, 학교운영전반에 관한 사항. 교과별, 수준별 교육내용 선정, 교사연수, 도서관정 등으로 학교운영위는 교직원회의 결정을

교직원 대표 40%, 중학교 이상의 경우 학생대표 1-2인, 기타 동문 및 지역대표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서 교육전문가를 제외한 것은 교장, 교사들이 교육전문가라고 볼 때, 교육전문가의 외부 초빙은 불필요하다고 보며, 다만 자문이 필요할 때 한시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교육전문가를 초빙한다.

기업가의 제외도 학교운영과 관련하여 기부금 및 찬조금의 모집에 지나친 비중을 둬으로써 형식적인 참여가 우려되므로 배제한다.

지역대표의 경우는 지방자치제와 관련하여 활동경력에 놓여있는 인사에 의해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역대표의 선출은 학부모 대표, 교사대표가 모여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신임받는 인물을 위촉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다.

이같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실시를 위한 방안들은 학교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학부모의 진정한 교육적 열의를 담아내고 교육문제에 대한 민주적인 토론의 장으로 발전해 가야한다. 지금까지의 육성회나 어머니회가 그랬던 것처럼 학교의 부족한 재정을 메꾸기 위한 역할을 주

동으로 삼아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현행 육성회를 폐지하고 육성회비를 학교운영지원금으로 변경하여 징수하는 교개위의 방안에는 찬성한다. 부모의 소득에 따라 학교운영지원비를 차등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만하다. 차등화작업은 학교단위에서 이루어져서는 안되며 부모의 소득수준에 대한 근거자료를 가진 해당관청에서 책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학부모들이 학교발전기금 모집경쟁에 나서서 학교간 비교육적인 경쟁을 부추겨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과 그 활동에 대한 반응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우선 학교현장에서의 반응이다.

한만중교사(관악중)는 "교무회의의 의결기구화와 교권신장이 우선적인 과제가 되어야함에도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해나간다는 것은 학교현장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고 항변한다. 가장 관심의 대상이 되어야 할 교사들이 개혁안에 대해 무관심과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윤철경 교수(한국교육연구소)는 교사와 학부모의 관계에 대해 "학급단위의 학부모, 교사의 관계개선이 이루어지고 활동공간이 마련되어 긴밀한 관계가 이루어져야한다"고 강조한다. 이는 교사들의 경우 소속감을 갖고 있지만 학부모의 경우는 소속감이 없어 학교운영위원회가 재력가들에 의해 좌우될 소지가 있는 만큼 공명하고 투명한 선거풍토가 마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공급자의 경쟁논리가 수요자의 경쟁논리보다 앞서는 경우 이러한 우려는 더할 수 있다. 따라서 교사와 학부모의 긴밀한 관계가 민주적인 선출로 대표성을 갖고 이를 존중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실질적인 문제에 대한 책임에 대해 유현숙 교수(한국교육개발원)는 "대표들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집단이기주의에서 벗어나 학교의 운영에 동참과 공통의 분담이 이루어져 발전적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별써 학교운영위원회의 실시에 비판적이고 실천의 의지를 보이지않는 일선 학교와 학부모의 반발이 압력으로 행사되고 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실천을 위해서는 우리의 교육환경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확산돼야 하고, 교사와 학부모가 민주적인 교육풍토와 선출방법으로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여건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제도라해도 교육개혁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

(박인옥 기자 정리)

오는 8월 9일 실시하는  
교육위원 선거에 김완자회  
장과 김정숙 학교참여위원  
회위원이 출마합니다. 많은  
지지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 5.31 교육 개혁안 — ②

# 자원봉사 활동

5.31 교육개혁안에 따르면 바람직한 청소년을 키우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의 하나로써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을 강조하고 있다. 자원봉사는 사회문제의 예방 및 해결 또는 국가가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공사의 조직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자발성) 영리적 보상을 받지 않고서도 (무보수성) 인간존중의 정신과 민주주의 원칙 (자발성)에 입각하여 낮은 타인들을 (이타주의) 상대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 (복지성) 함으로써, 사회의 공동선을 고양시킴 (공동체성)과 동시에 이타성의 구현을 통해 자아실현을 성취하고자 (자아실현성) 하는 지속적 (지속성)이고 계획적인 (계획성) 활동을 말한다.

## 5.31 교육개혁 지침

자원봉사가 실제로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5.31 교육개혁에서 내세운 지침은 다음과 같다.

△청소년들의 자원봉사활동을 단위제 학점화 (예: 연간 40시간 이상)하거나 봉사활동의 내용과 참여시간을 '종합생활기록부'에 기록 관리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상급학교 진학시 반영되도록 함 (국·공립대의 경우 필수적인 참조자료, 사립대의 경우 참조를 권장함). 96년부터 '종합생활기록부'를 작성하여 97년 입시부터 상급학교 진학시 학생선발자료로 활용토록 함. 따라서 현재의 고2부터 옛날 생활기록부와 병행하여 '종합생활기록부'가 입시에 사용되며, 99년부터는 새 '종합생활기록부'를 전적으로 사용.

△청소년 봉사활동을 위한 시간, 공간, 프로그램 등 여건을 대폭 조성 지원함.

△가정, 학교, 사회의 공동연대를 강화함.

△지역별 「청소년 자원봉사센터」 (문화체육부)를 통하여 참여 프로그램 및 기회를 확대하고 (방학기간 활용), 자원봉사활동의 기록유지를 위해 학교와 복지시설 그리고 청소년단체간 협조체제를 구성하여,

△실천위주의 인성교육을 전 교과에 반영하여 강화함.

△청소년 단체활동 및 봉사활동 관련부서 (총리실 청소년담당부서, 문화체육부 청소년정책실, 교육부 교육정책실, 정무제2, 보건복지부, 노동부 등)가 협의하여 청소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강구할 것.

현재 '종합생활기록부'에는 봉사활동 기록란이 없이 단체활동란에 같이 기입하게 되어 있다. 또한 단체활동 참가활동의 내신 반영비율은 4.6% (중학생의 경우 8%)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 특별활동, 봉사활동이 점수화되어 내신에 반영되고 있는 학교도 있기는 하다.

그러나 형식에 치우친 활동, 결석여부에 의해서만 평가되어 결석만 하지 않으면 최고 점수를 받기 때문에 학생들의 개성과 적성을 신장시키고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지는 없다. 뿐만 아니라 봉사활동 장소가 몇 군데만 지정되어 있고 입시공부에만 쫓겨 있어 있다가 점수 따기 위해 연중 행사로 한두 번 봉사활동을 하는 것도 문제이다.

또 교육부 발표를 보면 봉사활동의 내용이나 경중은 보지 않고 다녀만 오면 점수를 준다는데 이런 것은 형식적 활동을 조장하는 것이다.

이제 시각의 전환이 필요하다. 학교나 학부모는 입시를 위한 특별활동, 봉사활동이 아닌 진정으로 학생들의 개성과 적성과 창의성을 신장시킬 수



봉사의 손길을 기다리는 손길은 많으나...

있는 본연의 모습을 찾도록 해주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학생들의 자주적 단체활동을 인정하고 나아가서 장려해 주어 자발적 특별활동, 봉사활동이 되도록 해야 한다.

## 외국의 경우

선진외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미국이 전 인구의 약 25%, 네덜란드 18%, 프랑스 10%, 일본 9% 정도가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많은 인구가 참여하기까지는 많은 국민의 꾸준한 노력과 장기간에 걸친 국가적인 차원에서 제도마련이 병행됨으로써 가능했던 것이다.

우리의 경우 이번 교육개혁 조치로 전 인구의 약 1/4에 해당하는 900만명이 일시에 자원봉사에 참여하게 된다면 많은 혼란과 부작용을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구체적 시행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학생들의 자원봉사활동 및 집단활동이 활성화되어 있는 선진국가의 예를 보자.

—미국의 경우, 자원봉사활동을 공립학교 졸업필수로 규정되어 있으며, 1994년 현재 17개주에서 실시하고, 연간 100~200시간까지 자원봉사활동 시간을 의무화하고 있다. (지역사회 청소년 단체를 중심으로 청소년 봉사활동이 활발함).

—일본의 경우, 시·도 자원봉사 센터에서 시·군·구 단위로 11,000여개의 자원봉사 협력교를 지정하여 학교를 중심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호주의 경우 SCIP (Student Community Involvement Program)라는 중·고생 자원봉사 프로그램 시행하고 있다.

—대만, 싱가포르 등에서는 학교에서 가르쳐야 할 주요 덕목을 설정하여 실천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 학부모회의 입장

봉사활동에 대한 기록을 의무화함으로써 과잉될 문제점들과 관련하여 학부모의 입장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그 해결점을 촉구하고자 한다.

△봉사활동을 입시의 전형자

료로 삼기 이전에 학교는 학생들과 무리없이 봉사활동을 시행할 수 있는 제반여건을 마련하는 작업에 주력해야 하며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간의 협조를 위한 행정부서를 둘 필요가 있다.

△학생봉사활동에 대한 재정 지원계획이 제시되어야 하며 봉사활동의 지도를 위한 전담 교사의 육성과 배치가 요구된다.

△봉사활동의 점수화는 기본적으로 그 의미를 왜곡시킬 수 있으므로 봉사활동의 유무, 담임의 평가 그리고 시설기관의 기록만을 남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학생들의 자율적 활동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학생회에 대한 적극적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봉사활동에 대한 학부모의 이해를 확산시키기 위해 학부모와 교사가 만나는 '학급학부모회의의 상설화'가 필요하다.

△봉사활동의 대학입시 반영은 대학과 전공과목에 따라 특성화시킴으로써 봉사활동 본래의 취지를 살려가야 한다.

## 인터뷰

### 청주지회

## 이재관 지회장을 찾아



햇빛이 내리쬐는 고속도로를 달린다 인터체인지를 돌아 청주시로 향했다. 쪽 뺨은 플라타너스 터널이 시원스럽다.

청주시내에 있는 YWCA. 이곳 2층에서는 청주지회 창립대회가 열리고 있었다. '교육의 도시'라는 말이 어색하지 않게 강당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대회를 진행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청주지회장인 이재관씨.

어린이날 행사에 참가했다가 학부모회 회원 모집을 보고 가입했다고 한다.

"평소에 교육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교육이 올바르게 서려면

학부모 한사람 한사람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주 토박이인 이재관씨는 지금 청주에서 웅변학원을 하고 있다. 10여년 동안 학원을 경영하면서 팽야학교, 소년원과 자매결연을 맺고 견학을 갔었는데 아이들이 무심코 던진 한마디 한마디에 상처받는 것이 무척 가슴이 아팠다.

이재관씨는 학부모의 권리를 찾는 것이 바로 교육운동의 첫

걸음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청주지회는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학부모들의 의식강화를 위해 독서, 비디오, 등산, 교육 등의 소모임이나 강화를 열 계획이다.

"무엇보다도 회원들이 단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회원들이 '한살림'이나 '흙집모임' 같은 모임도 잘 해나가고 있으니 잘 되리라 생각합니다."

청주지회는 지난 4월부터 '올바른 교육을 위한 학부모회'라는 명칭으로 모임을 시작했는데 시인 도중환씨의 힘이 컸다고 강조한다.

이재관씨가 교육운동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전교조에서 개최한 '사회교육에 대한 올바른 깨달음'이란 주제의 강연이

다. 그 후 교육전문잡지인 우리교육과 한겨레 신문 등을 구독했다고 한다. 좀더 조직적이고 활성화되기 위해서 전국적인 조직과 함께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참교육 학부모회를 찾았다고 한다.

이재관씨는 세 딸을 둔 자상한 아버지이다. 딸들의 머리를 손수 감겨줄 정도로 가정적이기도 하다. 그러한 작은 생활이 교육운동을 하는 기본 자세라고 생각한다.

50여명의 회원으로 출발한 청주지회는 다른 지회와는 달리 아버지 회원들이 많다. 어머니 회원들도 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다. 그래서 출발이 더욱 힘차다.

〈김은주기자〉



## ◆ 가족이 함께 하는 성 이야기(1)

## 태어난 순간부터 성교육은 시작됩니다

아이를 키우며 성교육 문제로 한두번 고민해 보지 않은 부모는 없을 것이다.

성에 관한 책과 정보는 쏟아져 나오지만 올바른 선택과 가치관 정립에 어려움이 크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읽을 수 있는 성교육 전반에 관한 이야기를 몇 차례에 걸쳐 여성학자 윤양현 선생님께 들어 본다.



윤 양 현

## 자녀 성교육은 언제부터 필요 한지요?

먼저 성교육의 내용부터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생리에 관한 지식이나 이성교제를 비롯한 남녀관계에 관한 전반적인 상식을 가르쳐주는 것이 성교육이라는 생각을 굳이 잘못되었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러한 일련의 지식들은 근본적인 토대 위에 서있지 않고서는 절대 가르칠 수 없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근본적인 토대란, 성교육은 다른 아닌 인간교육의 부분집합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교육은

자녀가 질문 해 올 때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가 태어난 순간부터 당신은 당신도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이미 성교육을 시켜온 것이지요. 딸에게는 인형만 안겨주고 아들에게는 권총만 안겨 준 것, 딸이라는 이유만으로 분홍색 옷을 입히고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파란색 옷을 입힌 것, 아들이 오줌마렵다고 하면 도리가 모두 화장실처럼 느껴지고 딸이 오줌마렵다고 하면 죄 지은 자가 숨을 곳을 찾듯 두리번거리는 심리, 아들의 성기는 자랑스럽기만 해서 동네방네 사람들 다 만지고 다녀도(이게 한국 남아들이 당하는 공공연한 성폭행일터인데) 흐뭇하기만 하고 딸의 성기는 창피스럽기만 해서 기저귀 갈 때라도 엇보일 새라 재빨리 감추는 심리, 어디 이것 뿐입니까? 집안 일이라곤 손 하나 까딱 않고 요구와 명령만 하는 남편과 자녀 성적 떨어진 것도 주부 탓으로만 돌리는 남편의 물염치함을 당연하다고 여기며 살아 가는 아내와의 부부관계 등등. 우리 부모세대들이 지니고 있는 남녀에 대한 고정관념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일상적인 삶 자체가 자녀들에게는 곧 성교육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로 설명해 주는 수준을 생각하면 큰 오산이지요. 부모의 눈짓등의 반응 하나가 더 강력한 언어일테니까요.

아들에게 여자를 존중해야 한다고 백번 말하는 것보다 남

편이 아내를 존중하는 그 자체가 가장 확실한 성교육이라는 사실은 그러므로 두말 할 필요도 없겠습니다.

남녀관계가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로 전락한 현 시대에서 가해자도 피해자도 아닌 남녀가 존중하고 화합하는 살맛나는 세상을 염원하기에 성교육의 시급함이 필요하다면,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머리와 가슴 구석구석에 덕지덕지 붙어 있는 짙은 때 - 남녀에 대한 차별적인 고정관념들 - 부터 시원스럽게 벗겨내는 일입니다.

‘계집애가 어디...’ ‘사내자식이 되어 가지고...’라는 언어를 종종 사용했다면 앞으로는 ‘인간이 되어 가지고 그럴 수 있는냐?’로 고쳐 봅시다. 여자가 해서는 안될 일이라면 남자도 해서는 안될 일이어야 할 때 비로소 남녀가 서로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될 수 있지 않겠는지요?

## 성교육에도 단계가 있는지요?

어느 날 갑자기 말을 익히고 어느 날 갑자기 글을 쓸 줄 알게 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교육과 다른 아닌 성교육 역시 같을 수 밖에 없지요.

국민학교 1학년 아들을 둔 어느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엄마, 섹스가 뭔줄 알아?” 등 뒤에서 엄마는 모를 것이라며 의기양양하게 묻는 아이의 느닷 없는 질문에 그 엄마는 설 것이하던 손 힘이 갑자기 스르

르 빠져나가버립니다. ‘아니 이 애가 벌써 섹스를 다 알다니? 누구한테 들었을까? 어디서 비디오를 본걸까? 아! 어쩌면 좋지? 이걸 야단쳐야 하나? 아니면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 한참 머리속이 복잡해 아무 반응도 못하고 있는 엄마에게 아이는 또 느닷 없이 뱉아냅니다. “엄마 그것도 몰라? 섹스는 남자와 여자를 말하는거야. 엄마의 섹스는 여자, 아빠의 섹스는 남자, 나의 섹스도 남자”

이 엄마에게는 또 한번의 충격이었습니다. 아이의 질문이 두려움과 분노의 충격이었다면 아이의 대답은 부끄러움의 충격이었지요. 그 엄마에게 ‘섹스’는 곧 ‘남녀의 성관계’만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어디 이 엄마에게만 해당되는 문제이겠습니까?

성에 관한 한, 역사적으로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단계적으로 배워 온 바가 전혀 없었고 그래서 비공식 통로를 통해 무의식중에 보고 들어 기껏 입력된 것이라곤 남녀의 성기 중심적인 성관계 그것도 매우 부정적인 관계로 자리잡고 있는 것이 우리 부모세대들 아닙니까? 어느 사회에서나 인생의 낙오자는 인생에 대한 가치관이 편협하고 부정적인 사람들입니다. 마찬가지로 부모의 성인식이 성기 중심적이고 부정적인 한, 자녀들을 바람직하고 긍정적인 성문화의 계승자로 키워낼 수는 없습니다.

우리 어른들의 성인식이 성기 중심적이고 부정적인 것은 바로 ‘단계의 생략’으로 말미암은 결과입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성적인 존재입니다. 따라서 이성에 대한 호기심이 아니라 이성에 대해 자연스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이 당연히 주어져야 하는 것이지요. 내 몸과 감정에 대한 무지가 아니라 내 몸과 느낌이 나만의 것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그것을 지키고 보호할 권리를 갖도록 하는 여건이 당연히 주어져야 하는 것이지요. 요컨대 성교육이란, 성적 존재일 수 밖에 없는 남녀이므로, 어린 시절부터 자기 몸에 대한 금지를 갖는 것에서부터 그 기초공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몸에 금지를 갖는 사람은 상대방의 몸 또한 존중할 줄 알며 자기의 느낌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상대방의 느낌도 귀하게 여길 줄 안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사실을 우리의 역사는 너무도 오랫동안 외면해 온 것입니다.

그러면 성교육의 단계적인 내용을 알아야겠군요? 그것은 다음 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학자 윤양현 선생님은 고1, 중2 남매를 둔 어머니로서 현재 여성사회교육원 성교육 전문위원, 여성문제연구회 연구위원으로 계십니다.

## ◆ 박물관 순례-(6) 태평양 박물관

## 세계 최초 화장품 박물관 - 여성 문화사 재발견

시대에 따른 화장품 용기와 장식구의 변모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화장품 박물관이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에 설립 되었다. 이 박물관은 오랜 준비 기간 동안에 전통문화를 발굴 수집하여 동작구 신대방동에 1979년에 개관 되었다.

이 태평양 박물관에는 청동기 시대의 유물로부터 대한제국에 이르기까지 1000여점의 유물이 시대별로 전시되어 있다.

화장이란 것은 원시 시대에는 짐승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았고

시간이 흐르면서 신분이나 계급을 나타내 주기도 했다. 그러나 자신의 아름다움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화장이 시작되면서, 많은 화장재료와 기법들이 수없이 개발되고 급격히 퍼져 나가고 있다.

화장과 함께 발전해 나간 것이 몸을 장식하는 장신구이다.

삼국시대 이전에는 피부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 돼지기름을

발랐던 기록이 있다. 그러나 얼굴을 꾸미기 위한 화장보다 그저 피부를 부드럽게 하는데 그쳤다. 몸에 문신을 했고 장신구로는 옥을 썼다.

삼국시대에 와서 본격적인 화장기술이 다양화되었다. 고구려 시대에는 머리를 곱게 빗고 눈썹을 다듬고, 볼에 연지를 발랐다고 한다. 기록에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약 1400년전부터 연지를 사용한 것으로 되어있다. 연지는 미용상의 이유보다 붉은색이 잡귀를 쫓아낸다고하여 여인들이 이마나 뺨, 입술에 발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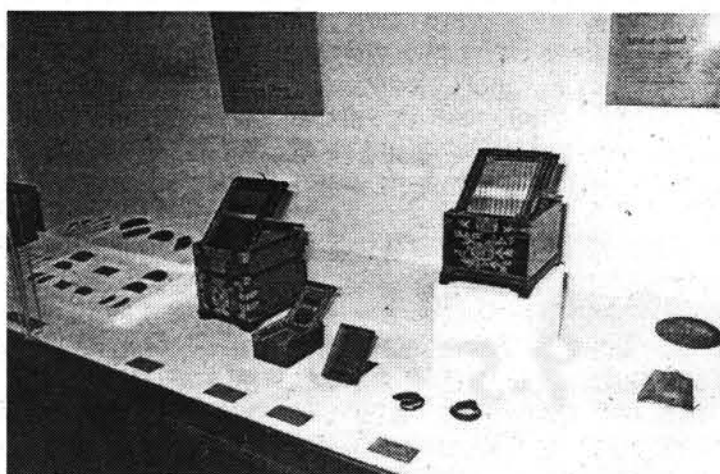
백제인들은 아주 얇은 화장을 했으며 화장품 제조기술을 가지고 있어 일본에 전파 시켰다.

신라시대에는 영육일치사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름다운 육체에 아름다운 정신이 깃든다는 것으로, 화랑들도 화장을 하고 장신구로 몸을 장식하고 다녔다. 신라의 분제조 기술은 대단했다. 그 분은 쌀과 서속의 가루를 3:2로 배합하여 만들었고

이를 만들기 전에는 찹가루, 백토, 황토등의 흙가루를 가공하여 사용했다.

고려시대에는 숭불정책으로 일반인들은 화장을 하지않고 기생들만 분화장을 했다. 기생들은 화장뿐만 아니라 머리 염색까지 했다. 특히 이 시대에는 화장용구가 발전되어, 전에는 토기나 목기였던데 반해 분합, 유지그릇, 향수병들을 청자로 만들었다. 또 청동을 이용하여 족집게나 동경을 만들어 사용하였다. 이런 용기들은 사용하기가 좋을 뿐더러 예술적인 가치도 있었다.

조선시대에는 사치를 금했으므로 화장보다는 장신구가 발달하기 시작했다. 신라시대에는 금장신구가 주종을 이루었지만 조선시대에 와서는 산호, 백옥, 비취, 밀화등을 사용하여 비녀 머리꽂이, 노리개, 가락지를 만들었다. 장신구의 크기와 모양에 따라 신분을 표시하였는데, 상류층 부녀자들이 머리 위에 꽃



았던 띠는 미세한 금속공예의 극치를 보여준다.

일제 초기 1916년 유명한 박가분이 발명되었다. 박 승직이라는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박가분은 연일 많이 팔려 나갔는데 나중에 납성분의 부작용으로 문제가 되기도 하였다.

이 박물관은 우리나라의 여성문화의 한 단면을 수집된 유물을 통해 보여주며 거기에 따른

는 생활사를 짐작케 해준다. 또한 이동 전시회도 열어 일반인들에게 여성문화의 발자취를 알게 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일요일과 공휴일만 휴관하며 관람료는 무료이다. 관람 소요시간은 1~2시간 걸린다. 박물관 주변의 볼거리로는 낙성대와 보라매 공원이 있다.

(김해순기자)





# 학부모 한마당

독자와 함께 하는 '학부모 한마당'에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직접 찍은 교육사진이나 4매의 원고를 주소, 전화번호와 함께 보내 주십시오.  
 보내실곳=서울 영등포구 당산동6가 314 당일빌딩 301호 학부모신문  
 독자한마당 담당자 우편번호 150-046  
 전화=02-634-6508, 675-9068 FAX=02-634-4359  
 전리안 ID HAKBUMO  
 채택 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 인내하는 마음

요즘의 세상을 아이들에게 가르친다는 것이 조금씩 두려워지기 시작한다. 어른이 만들어 놓은 사회구조와 법규를 아이들에게 잘 지키라고 말한다는 것은 그들의 눈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세상이기 때문이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지고, 가스가 폭발하고, 아이들이 잠들어있는 내집에서 마음놓고 편히 자라고 할 수 없으니 부모로서 부끄럽기 짝이 없다.

이 세상은 아이들의 것이고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어른들은 끝없는 상상과 연구를 하여 만들어 놓았지만 이제는 아이들에게 어른을 믿고 미래의 날개를 펴라고 누가 말할 수 있을 것인가?

학교에서는 급식설비시설비를 교장과 서무과 직원이 업체로부터 나누어 받아 먹고 아이들에게는 정직하고 바르게 크라고 설교를 하고 있으니 정말로 부끄럽기 짝이 없는 어른들의 세상 아닌가?

조금 참고 천천히 가기보다 빨리 가려고 남을 밟기에 여념이 없다. 어린이는 남보다 좋은 성적에 좋은 학교를 가기 위해서 인성을 배우기보다 이기심을 먼저 배우고, 어른들은 요령과 부정을 배우고 인생을 좀먹으며 두개의 가면을 쓰고 살아간다.

닥치지 않으면 모른다고, 어쩔 수 없

다고, 이래야 살아남을 수 있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고 교과서처럼 읽고 쓰도록 한다.

음식을 기다리지 못해 안달하는 어린이, 원하는 것을 사주지 않는다고 떼쓰면 부모는 얼른 사주고 뒤에서는 주먹을 휘두르며 다음에도 이러면 절대 사주지 않는다고 협박하는 부모. 그래서 아이들은 떼를 쓰면 된다는 요령을 터득하기 시작한다.

기다릴 줄 모르는 아이와 어른들. 빨리 치료받고 빨리 가기 위해, 빨리 준공검사를 받고 돈을 벌기 위해 부모는 아이에게 '빨리빨리'를 서두르며 빨리 가르친다.

눈에 보이는 성과만을 기대하고 과사하기 위해 우리 기성세대는 얼마나 많은 주변의 것을 희생할 것인가?

참교육 학부모회의 "바로서는 학부모 우측서는 아이들"이라는 슬로건은 결코 학교안에서만 외치는 구호가 아니라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학교안과 밖에서 실천하는 어른들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박경옥 인천〉

## 학습 여행 보내기

요즘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좋은 경험과 교육적 환경을 조성해 주려고 노력한다. 자녀의 수가 많지 않고 그만큼 생활 여건도 향상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름 방학중에 각종 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캠프라고 이름 붙은 곳이라면 그 경비 또한 만만치 않아 큰맘을 먹어야 보낼 수 있는 형편이다. 물론 10만원에 가까운 경비를 들인 만큼 캠프를 다녀온 아이들은 마치 인디언처럼 구릿빛 피부로 변해서 즐거운 추억을 간직할 수도 있는 일이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캠프 비용이 부담스러운 가정의 많은 것 또한 사실이다.

이럴 때 가족끼리 적은 비용으로 즐겁게 교육적인 효과까지 누리면서 갈 수 있는 곳이 있다. 시골에 있는 일가 친척을 찾아가는 것이다. 이때는 먼저 가계도를 그려 주어 어떤 관계의 친척 인지를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먼 친척이라도 서로 뿌리가 하나임을 알려주는 것이다. 또 웃어른을 대할 때의 전통 예절도 떠나기 전에 미리 알려주도록 한다.

다녀온 후에는 옛날과 오늘날의 가족 제도의 차이, 일가 친척끼리 돕는 마음, 서로의 차이점 등에 대하여 부모와 함께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좋다.

또 다녀 온 뒤에는 편지를 띄우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전화로 몇 마디 해 버리는 것보다는 편지를 쓰게 하는 편이 서로의 정을 느낄 수 있어 좋다.

그리고 단순히 친척집을 가 보았다는 것보다는 다녀온 후의 사후 지도가 더 중요한 것이다.

또 이외 특별한 경험을 할 수도 있다. 시내버스의 시발점에서 종점까지 오고가게 해보는 것이다. 이때는 의외로 많은 것들을 보고 들을 수 있는 특이한 경험이 될 수도 있다. 물론 이것은 시내버스뿐 아니라 전철과 기차를 이용할 수도 있다. 열차 편을 이용할 때는 너무 멀리 가는 것보다는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거리가 적당한데 이때는 반드시 왕복표를 구입하도록 한다.

또 가족끼리 할 수 있는 것으로는 맑은 날 밤 야외로 나가 보는 것이 있다. 이때는 별자리 관을 보면서 쌍안경으로 달을 관찰해 보면 색다른 느낌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아이들을 데리고 지금이라도 야외로 나가보자. 별자리 관은 동네 문구점에서 쉽게 구할 수 있다. 일이 바빠 낮에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없는 아버지들은 이런 방법에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책가좌화 해 가는데도 가족끼리의 참된 모임을 갖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일년에 단 한 차례 바캉스다 뭐다 해서 유명한 관광지를 찾는 일이 많다. 그러나 복잡한 곳에서 정신없이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이름 없는 절이나 숲을 찾는 것도 의외로 좋다.

교과서에 나오는 달맞이꽃이나 노간주 나무, 백송, 낙엽송, 잣나무 등 식물들을 직접 보게 하는 것도 좋다. 또한

우리는 사회의 다른 모습을 생각하면서 떠올리는 것들이 있다.

소외된 사람들. 고아원, 양로원, 장애자, 무의탁 노인들 그리고 소년 소녀가장들. 아마 삶이라는 단위를 구성하는 것으로는 별로 다르지 않지만 어느 국가 어느 사회든지 이러한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나의 어린 시절, 그런 사람들을 보는 시각이나 봉사는 평범한 것이었다. 그들과 함께 놀고 그들과 함께 생각하고. 그러나 그것이 봉사라거나 내가 특별하게 무엇을 해 주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물론 다른 친구들도 어른들도 마찬가지였으리라.

요즘은 어떠한가? 신문지상에서, TV에서 봉사를 외치고, 어떤 특정한 이유나 구호를 내걸고 봉사를 강요하고 있지 않은가? 더더욱 가슴아픈 것은 교육현장에서도 이제 봉사를 하나의 교과목처럼 취급해서 점수를 따기 위한 방편으로 전락시키지 않았는가?

내가 길가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부축해 드린 것이, 또 가난한 아이의 도시락을 대신 싸다 준 것이 어떤 의미에서든 점수로 환산된다는 것은 인간이 사는 세상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우리 인간 스스로가 자신을 점수로 평가되는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인간성을 마비시켜 버리게 된 가장 큰 이유. 그것은 바로 교육이념이 잘못된 까닭이다.

60년대 이후 꾸준히 성장시켜온 경제. 경제의 부흥을 위해서라면 정신과 문화와 도덕마저 뒷전으로 여겼던 우리의 교육 실상. 그 때문에 지금의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인간성의 상실과 도덕의 부재라는 늪 속에 빠져버리게 된 것이다.

한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것은 바로 교육의 힘이라 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 교육을 중요하지 않게 생각해 온 것이다.

종합생활기록부라는 새로운 교육개혁의 산물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아이들의 도덕성까지 저울로 달아서 계산하자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더구나 자원봉사는 과목을 신설해서 아이들의 순수함을 깨뜨리려는 의도밖에 보이지 않는다. 봉사를 강요하기보다는 차라리 암기과목 하나를 축소시키더라도 인간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스스로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려는 꿈을 키워주는 것이 옳지 않을까?

봉사는 기쁨이요. 내능력으로 사회에 기여하고 나로 인해 국가와 국민이 평화로울 수 있다면 스스로 원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는 교육이 바로 참 교육이 아닐까?

또하나의 명예를 지는 우리 아이들에게 난 말한다.

"봉사는 인간의 당연한 도리이며 기쁨을 주는 행동이다. 내가 해야 한다."

〈구미영 청주〉



경주나 부여의 고적지, 충주의 고구려 시대의 비석, 북한산의 진흥왕 순수비 자리 등을 찾아가 보면 당장은 학습에 도움이 안 되더라도 언젠가는 크게 유용하게 쓰일 것이다.

또 박물관을 견학시킬 때 부모가 입장권이나 승차권을 사서 손에 쥐어 주는 것보다 어린이 스스로 표를 구입해 보는 경험을 시킨다면 더욱 의미있는

일이 될 것이다. 방학이 벌써 절반이나 지나갔다. 아이의 손을 잡고 지금이라도 야외로 나가보자. 의외로 마음이 열리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엄마, 공부 잘하게 해 주세요〉중 발췌  
 배영희 기자



# ■ 자녀와의 올바른 대화법 ⑪

## 자기 표현 훈련 되는 나 전달법... 문제 행동 지적은 자존심 상하지 않게



지난 번에는 나 전달법의 구체적 실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즉 자녀의 행동이 나에게 문제가 될 때 그 행동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 그에 대한 나의 느낌을 정확하고 솔직하게 표현하여 자녀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수정하도록 하는 대화법이 나 전달법입니다. 이러한 자녀의 문제 행동, 영향, 느낌을 나 전달법의 3요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요소들에 대해 좀 더 풀어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문제 행동을 지적할 때 비난이나 비판없이 서술식으로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난없이 서술식으로 이야기한다는 건 첫째, 행동에 대한 단순한 지적(예: 옷을 옷장에 걸어 놓지 않으면...)이며 둘째, 가치판단이 개입되지 않은 표현(예: 옷이 뒤죽박죽 방바닥에 널려 있으면... 등은 가치판단이 개입된 표현입니다.)이며 셋째, 부사나 형용사들의 사용없이 표현(예: 너는 항상 옷을 어질러 놓고... '항상'이라는 부

사가 사용된 표현입니다.)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진찍기원리라고 합니다. 즉 사진은 '지금 여기서'의 행동만을 나타내주지 과거나 미래에 대한 행동은 이야기 해 주지 않습니다. 자녀의 행동 중 문제가 되는 부분을 사진 찍기 원리에 의해 지적을 하면 아이는 자존심을 상치 받지 않고 자신의 행동을 수정하게 됩니다. 즉 이 원리는 자녀를 인격적으로 존중해주는 마음이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잘못을 했어도 그로 인해 인격적 모독을 당하거나 자존심을 훼손 당하게 되면 반발심이 생겨 자신의 행동을 고치려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부모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아이의 어떤 행동을 전체적 인격과 결부 시켜 아이를 비난하고 비판하면 아이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반성보다는 분노나 적개심을 갖게 되어 반발심이 생기게 될 것입

니다. 따라서 자녀의 문제 행동에 대해 지적할 때 그 행동에 대해서만 단순히 이야기하는 연습을 통해 익히도록 합니다.

그 다음, 내가 받는 영향입니다. 자녀의 문제 행동이 나에게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그 영향은 여러가지로 분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자녀의 행동 때문에 내가 써야 할 시간, 정력, 돈의 소비가 될 수도 있고(예: 방을 내가 치우려면 힘이 들어서... 등)

또한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방해받을 수도 있고(예: 전화를 못하게 되어, 책을 읽을 수가 없어... 등) 신체적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예: 시끄러워서... 눈이 부셔서...) 또한 경제적 가치로 따질 수 없는 금지나 소중함에 대한 손상일 수도 있습니다. (예: 엄마가 손수 만든 도자기가 깨지면... 등)

이런 영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어 자녀가 자신의 행동이 부모에게 피해가 된다는 것을 인식해야 자신의 문제 행동을 수정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정에 대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녀의 받아들일 수 없는 행동 때문에 나에게 영향이 미치게 되면 그에 대해 여러가지 감정, 느낌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감정 중에는 영향을 즉각적으로 받게 될 때는 그 느낌이 실망, 분노, 슬픔 등이 될 수도 있고 행동의 영향이 조금 후에 나타난다면 그 감정은 대체로 두려움이 될 것입니다. 즉 걱정, 근심, 염려 등입니다. 가령 '너가 자전거를 빨리 달리면 넘어져 다칠까봐 걱정이 된다' 등.

따라서 자신이 느끼는 감정이 분노나 슬픔인지 두려움인지 정확하게 파악해서 아이에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정진기자>

## 즐거웠던 시간들 다시 이런 기회가

## 토요학교

## 창의성을 꽃피우는 작은 학교를 바라며

"아, 지각이네!"  
같이 가기로 한 친척 동생의 피아노 레슨 때문에 지각을 하게 되었지만 우리는 이미 늦은 걸 어떡하냐고 생각하면서 여유롭게 토요교실로 향하였다. 거기에는 이미 많은 아이들이 나와 있었다. 우리는 중1반 중2, 3학년반으로 나뉘었다. 우리는 토론교실부터 시작하였다.

이게 토요교실과의 첫 만남이었다. 토요교실을 다니고서부터는 토요일마다 바빠졌다. 하지만 친척동생을 자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별로 가기 싫은 점은 없었다. 하지만 딱 한번 친척동생이 학원아이들처럼 롯데월드에서 갔을 때에 나도 같이 가려고 하였으나 엄마가 "헛소리 말고 가."라고 하였을 때는 정말로 짜증이 나고 가기가 싫었다.

그런데 다른 아이들은 무지무지 오기가 싫은 지 피치 못할 이유가 있는 지 빠지는 경우가 많았다. 그 이유는

첫째, 황금같은 토요일 놀러가고 싶은 곳도 많을 텐데 오기가 싫을 것이다.

둘째, 교실 수업 방식이 역사교실은 거의 슬라이드만 보니까 애들이 지루해서 죽는 시늉을 한다. 어떤 아이(체면을 생각해 익명으로)는 아예 누워서 잤으니 알만하다.

토론교실은 정반대이다. 분위기가 너무 들떠서 토론을 진행 못 할 정도였다. 중2, 3학년 언니오빠들은 진지하게 슬라이드도 보고 토론도 하였는데 우리가 너무 철딱서니가 없나보다.

아, 몇 가지 재미있는 일도 있었다. 이건 원래 비밀인데(이건 완전 공공연한 비밀이네!) 선생님이 설명을 하시

며 슬라이드를 돌리시는 동안(슬라이드는 몇개의 문장으로 되어있다) 다른 문장을 몇장 뒤집어 놓은 것이었다. 선생님께서 "이건 중요한 장면이야." 하시는데 옆으로 나오는 것이다. 우리는 교실이 떠나가라 웃었다. 장난기가 발동한 나는 역사수업을 마치고 토론교실로 옮기기전 문장으로 뒤집어 놓은 것이었다.

그리고 이것은 토요교실과 깊은 상관은 없지만 선생님이 명명한 실수를 하신 경우다. (선생님 소리) 첫번째 달 선생님 이야기인데 5월 15일 '어화둥둥 우리들은'을 될 수 있으면 가보라고 하셨다. 마침 시간이 있어 가게 되었는데 선생님이 오시질 않았다. 토요일에 안 오신 이유를 물었더니 하시는 말씀이 "그날 약속이 2시에 끝나서 못 갔어." "네? 시간은 5시부터 8시인데요?"

그랬더니 시간을 2시부터 5시까지 인 줄 알았다는 것이다. 내 참 선생님께서 먼저 가보라고 하셔서 놓고 시간도 제대로 모르시다니...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오신 선생님이 중1반 어떤 남자아이하고 무지막 지하게 닮은 것이다. 거짓말 조금 보태 완전히 봉어뽕이다. (난 전에 누워 자던 아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 통통한 몸매에 안경끼고 까무잡잡한 것까지 말이다. 그래서 우리가 숨겨논 자식이다 뭐다해서 그날은 수업이 진행되지 않았다. 누구 말에 따르면 눈빛마저 그윽하네나? 아깝다. 사진찍어서 맛있는 거 안사주면 사모님께 보낸다고 할걸.

즐거웠던 시간들... 다시 이런 기회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지연>

교사 1명당 학생 10명의 이상적인 학급당 학생수를 자랑하고, 교실에는 교육용 비디오테이프가 100여개나 있으며, 학부모가 손자가 없어도 부담없이 학교에 와서 아이들의 교육문제를 교사와 상의할 수 있는 곳, 컴퓨터 시설과 복사기, 그리고 팩시밀리가 갖추어져 있어 교사들이 필요한 교육정보를 언제든지 빼볼 수 있고, 교육자료를 복사하고, 컴퓨터로 만들어 볼 수 있는 곳, 교사들이 혼자서 원맨쇼를 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식 토론수업으로 늘 아이들과 호흡하면서 왜 그런지 원리를 알게 하고 교사도 학생도 함께 학습목표에 도달하는 학교, 이것이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서울지부'가 마련한 '토요학교', '토론교실'의 모습이다.

전반적으로 교육개혁의 바람을 타고 창의성 교육에 대한 요구가 높아져 가고 있는 이때, 단순히 교육개혁을 주장할 뿐만 아니라, 창의성이 꽃피는 작은 학교, 교사-학생-학부모가 진정으로 하나가 되는 참교육 학교를 우리의 힘으로 만들어 간다는 점에서 학부모회 서울지부의 시도는 의미있었으며, 가끔적이면 서울 각 지회와 전국으로 확산되었으면 한다.

그러나 보다 발전된 '토요학교'를 위해 다음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한다.

우선 첫째로, 토요일 방과 후에 하는 시간대에 관한 문제이다. '토요학교'교사를 구하는데도 이 문제가 가장 큰 어려움이었으며, '토요학교'개교 이후 수업을 하면서도 아이들의 싱싱한 혈기를 토요일 오후에도 묶어 둔다는 것이 한편으로 미안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어

려움이었다. 물론 토요일 오후에 아이들을 붙잡아 두기 위해 골머리를 싸다 보니 수업준비와 질은 훨씬 향상되는 장점이 부차적으로 있기도 했다.

다음으로 3명의 교사가 한 날씩 맡아 지도하는 방식으로 진행한 '토론교실'의 경우 처음과 중간에 한 번 교사들이 전체가 모여 교육과정을 조정하고, 수업에 관한 정보를 교환한 적이 있었지만, 정기적으로 만나 학교운영문제와 교과지도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하지 못했다.

또한 교사와 학부모회 책임자와 논의도 많이 부족했다. 학부모회의 다양하고 많은 사업 때문에 그러하리라 짐작은 하면서도, 책임자 한 사람은 고정적으로 '토요교실'에 나와 학교운영문제와 교과내용 등에 대한 학부모회가 설정하는 방향에 맞게 운영되는 지를 관찰하고 논의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아무쯁로 실험학교형태로 운영된 '토요교실'이 부족한 점을 보완하여 창의성을 꽃피우는 참다운 작은 학교로 거듭나길 기대해 본다.

<정현태 토론교실 담당교사>

참교육학부모회에서는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12회에 걸쳐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토론과 역사공부에 대한 토요학교는 재미있는 역사 이야기와 슬라이드 교육등을 통해 열심히 지도해 주신 선생님과 토요학교에 참가한 학생의 뒷 이야기를 들어 보았습니다.



# 학부모, 자녀 위한 8월 행사 안내

## 알림

### 전주시외

8·15 50주년 기념 어린이 글쓰기 그림대회-통일은 내친구  
 • 일시: 8월 11일 오후 1시  
 • 장소: 경기전  
 • 대상: 유치원 5세~국교  
 • 문의: (0652) 231-6242

### 여천지회

여름방학교실  
 • 내용: 미술, 국악, 민요, 풍물, 어린이 체조  
 • 일시: 8월 1일~25일 (화, 목)

금)  
 • 장소: 학부모회 사무실  
 • 대상: 유치원, 국교  
 • 회비: 20,000  
 • 문의: (0662) 84-5116

### 울산지회

어린이 역사기행  
 • 일시: 8월 7일~9일  
 • 장소: 부석사, 소수서원, 도산서원, 안동댐, 하회마을, 병산서원  
 • 대상: 국교4~6  
 • 회비: 63,000

• 문의: (0522) 92-0734

### 학부모 역사공부

• 일시: 8월 17일 오후 1:30  
 • 장소: 학부모회 사무실  
 • 문의: (0522) 92-0734

### ※풍류회

청소년 국악교실  
 • 일시: 8월 12일~16일  
 • 장소: 속리산 보람원  
 • 대상: 국교5 이상  
 • 문의: 738-9847

## 야외에서 지켜야 할 것들

**\* 캠프에서 불을 피울 때**  
 불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피우는 것이 좋으나 꼭 피워야 할 경우는 될 수 있는 대로 작게 피운다. 불자리가 이미 만들어져 있으면 그곳을 이용하여 연기의 방향에 항상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불은 가능하면 물에 가까운 곳에 피우며 숲 근처나 나무 밑에서는 피우지 않는다. 또 해안 등의 평평한 바위는 가열이 되면 갈라지는 경우도 있으므로 그 위에서는 불을 피우지 않도록 하자.

**\* 불피운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캠프에서 불을 피우고나서 불빛이 사그라든 후의 흔적은 어떻게 할까. 캠프장 여기저기에 남아 있는 타다 만 장작과 재가 결코 보기 좋지는 않을 것이다. 진한 감동에는 책임이 따르는 것처럼 불피운 흔적을

남기지 말자.  
 불피운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면 불을 피우기 전에 땅을 주의깊게 파고 흙더미는 옆으로 옮겨 놓고 끝나면 본래의 자리로 옮긴다. 또한 불을 피운 자리에는 가열된 돌이 남지 않게 하고 불 피운 흔적이 나지 않도록 정리한다.

**\* 지름길을 만들지 말자**  
 조금 빠르게 가기 위해 공원이나 정원의 잔디밭 위를 질러다녀 결국 지름길이 나 버린 것처럼 된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사방 15미터의 잔디밭은 4명이 살아가기에 충분한 산소를 방출한다. 그러므로 지름길이 날수록 우리가 마실 산소 또한 그만큼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뜻한다. 조금 빠르게 가기 위해 우리의 생명을 던져 버릴 수는 없지 않은가. 절대 공원이나 정원의 잔디밭 위를 질러

다니는 것은 삼가야 한다.

**\* 텐트 근처에 도랑을 파지 말자**  
 때로 야영지 곳곳이 마치 참호를 판 전쟁터 같은 경우가 있다. 갑자기 쏟아진 비 때문에 근처에 도랑을 팔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덩어리째로 땅을 갈게 파낸다. 야영이 끝나면 원상태로 회복시켜야 한다.

**\* 라디오 등을 크게 틀어 놓지 말자**  
 라디오나 카세트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은 틀어 놓은 사람에게만 즐거울 수 있지만,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모처럼 느끼는 자연의 물음을 깨뜨려 버리는 소음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다. 자연의 품에 들어 느끼는 자연의 소리와 풍경이 춤추며 노래하는 즐거움보다 더 큰 감동을 준다는 것을 깨닫자.

## 95년 상반기 활동일지

1월 18일-19일 제 6 차 대의원대회 및 연수

1월 23일 고교입시부활반대를 위한 성명서 발표

1월 26일 고교입시부활반대를 위한 연대회의 기자회견 및 성명서 발표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참교육 시민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여성민우회

2월 27일 교육방송 살리기 공청회 교육방송 이렇게 서야 한다. -교육민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참교육시민모임,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시청자연대회의 공동 주최

3월 8일 교육부에서 입법예고한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질의서 발송

3월 13일 교육부에서 입법예고한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의견서 발송

3월 15일 고교입시부활반대를 위한 연대회의 결성식 및 공청회

3월 17일 학교급식실시를 위한 공동조례제정을 위한 기자회견 -한국여성단체연합,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인간교육실현학부모 연대, 전국지방자치유관연구소 및 단체협의회, 전교조 초등지회

3월 17일 고교입시부활, 무엇이 문제인가? 라는 제목으로 올바른 교육개혁을 위한 공청회 개최. -고교입시부활 반대를 위한 범국민연대회의 주최

3월 28일 학교현장의 돈봉투 수수관행에 대한 지도 강화요구서 발표

3월 28일 학교법인 중등학교원에 돈봉투, 폭력, 불법과외 없는 학교만들기운동에 대한 환영의 글 발송

4월 6일 교육방송 살리기 연대회의 발족식 및 기자회견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인간교육실현 학부모연대, 참교육시민모임, 시청자 연대회의

4월 22일 고교입시부활 반대범국민 연대회의 피켓팅

4월 26일 올바른 교육개혁을 위한 범국민 연대회의 결성 및 기자회견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전교조, 민교협, 참교육 시민모임, 전강노, 전국연합, 국민회의, 한국노총, 민주노총 준비위 등 16개 단체

4월 30일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안내 팸플렛 제작

5월 4일 방송개혁국민회의에서 선거방송대책본부 발대식 및 기자회견

5월 5일 어린이날 행사 (서울, 인천, 부산, 마산, 울산, 대구 등 전국각지역에서 행사 주최)

5월 13일 스승의날 행사 -여화동동 우리들은 (서울지부)

5월 25일 교육재정 GNP5% 확보 위한 재경원 방문 피켓팅

5월 28일 제 6차 교사대회 참석 -제1회 참교육상 시상

5월 29일 교사선언에 참가한 교사에 대한 탄압증거를 요구하는 성명서 발표

5월 29일 학교급식비 착복 관련 인사 중징계와 학부모로부터 급식찬조금 징수중단을 요구하는 성명서 발표

6월 1일 명신국민학교 고발전화에 대한 후속사업으로 해당 교육청에 질의서 발송

6월 2일 5·31 교육개혁안 발표에 따른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입장발표

6월 14일 내발산국민학교 김덕일선생님 징계사유에 대한 질의서 발송

6월 20일 -7월31일 학교급식실태 및 학교급식 시설 찬조금징수 실태에 대한 2차 설문조사

6월 24일 5·31 교육개혁안에 대한 입장 홍보를 위한 거리 행진 및 피켓팅 -올바른 교육개혁을 위한 범국민 연대회의 주최

7월 11일 학교운영위원회의 올바른 참여를 위한 공청회 개최

7월 18일 참교육을 위한 청주학부모회 창립

### 어린이들의 창된 친구 산하어린이 시리즈

이오덕 · 권정생 · 위기철 · 신경림 · 이현주 · 윤기현 · 지동환 · 강정규 · 이재복 · 임길택

## 한국 아동문학을 빛낸 작가들 그들이 바로 <산하어린이> 작가들입니다

전국의 많은 학교와 선생님께서 '학급 문고'와 '독후감 쓰기' 글감으로 자신 있게 추천하는 <산하어린이>는 그 동안 서울 YWCA, 서울 YMCA, 문화체육부, 어린이도서관연구회, 국립중앙도서관, 마산 YWCA, 좋은 책 만들기 운동연합회, 창원 YWCA, 군산 YMCA, 어린이 문화 진흥회, 부산 YWCA 등 많은 단체로부터 우수 아동도서로 선정된 권위 있는 책입니다.

#### ▶ 산하어린이

- 10 울면서 하는 숙제 이오덕
- 11 자물쇠는 원경택사 김현아
- 16 비오는 날 읽는 소 한 교실 어린이
- 17 비오는 날 읽는 소 한 교실 어린이
- 18 공부하는 책 해아 하노 한 교실 어린이
- 29 동심은 잘 읽다 동시 · 동화
- 34 혼자서 쓰는 아이 어린이 철학교육연구소
- 35 날마다 쓰는 아이 어린이 철학교육연구소
- 36 민요기행 신경림
- 41 나뭇잎 교실 윤재규
- 51 천연 기념품 만들기 나은경
- 61 속담 하나 이야기 하나 이덕현
- 72 이오덕 글 이야기 이오덕
- 74 짝배구 우리 악기 배워보세 신장식

#### ▶ 선생님이 들려주는 이야기

- 81 선생님이 들려주는 이야기 달력 교육문제창작회
- 38 39 40 과학을 빛낸 사람들 1·2·3 유한준
- 42 43 재미있는 동물이야기 1·2 오정영
- 62 곤충이야기 물고 놀이진 실험관찰이야기 김기영
- 63 곤충이야기 물고 놀이진 실험관찰이야기 김기영
- 64 곤충이야기 물고 놀이진 실험관찰이야기 김기영
- 64 곤충이야기 물고 놀이진 실험관찰이야기 김기영
- 2 연오랑 세오녀 조호상
- 3 4 5 일찍정자 읽기행복들 1·2·3 김우일
- 31 서울 800년 이야기 김근태
- 50 흥미로운 국보 여행 제봉기
- 52 53 꼬마 단군 1·2 정우상
- 58 59 60 소년 독립군 주몽이 1·2·3 강정민
- 68 일배구 국악이야기 배워보세 김대균

#### ▶ 신기한 세계여행

- 85 신비한 지구탐험 김운정
- 7 천대일 위기철
- 33 유동주 정찬구
- 49 신세계 김서경
- 73 목수의 아들 배수 최진주
- ▶ 장작집
- 1 참나무 선생님 박상규
- 6 서울로 간 허수아비 윤기현
- 8 여우와 여우가 뭐 하니 김 옥
- 9 허수아비의 눈물 권정생
- 12 배가 뜨지 않는 마을 윤기현
- 13 산사는 교실 윤재규
- 14 바보와 바보 박상규

#### ▶ 생명이 들려 준 이야기 위기철

- 19 팔로마이 이상권
- 20 하루나 하루만 이준연
- 21 상계동 아이들 노정실
- 22 따뜻한 사랑 박상규
- 23 카타리 종선 장수 아저씨 유재홍 · 이현주 외
- 24 도둑 마을 장문식
- 25 최초리와 훈장 윤기현
- 26 동수의 세번째 비밀 유순하
- 27 아기 장수 조호상
- 28 고독한 가수와 꼬마배우 이상권
- 30 삼마를 아이들 신승재
- 32 아이쿠나 호랑이 윤재규
- 37 아이들은 독재자 윤기현
- 44 친구 없는 못살이 이재복

#### ▶ 다 타고난 재주가 있지요 이재복

- 46 작디고 작디고 큰코 다쳐요 이재복
- 47 이 고집쟁이 좀 보세요 이재복
- 48 김삼지의 배주공 이재복
- 54 팔복물어와 늑대 지동환
- 55 사장이 된 불행장수 박상규
- 56 집을 나간 소년 현 덕
- 57 허느님이 우리 앞집에 살고 있어요 권정생
- 65 파리 부는 소년 이수홍
- 66 67 서울에 온 어린 왕자 1·2 오봉옥
- 68 드림을 아이들 임길택
- 70 71 큰소나무 1·2 강정규
- 75 제비 제비 참도깨비 강정규
- 76 현동이의 검둥이 이오덕 · 권정생 외
- 77 배두산 산삼과 배산이 이야기 동태

#### ● 산하어린이 81

### 선생님이 들려주는 이야기 달력

재미있는 이야기가 달력처럼 펴 있는 이야기 달력

책을 펼치면 달마다 새로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야기 달력으로 새로운 놀이 · 공부 달력을 만들어 보세요. 달마다, 학기마다, 학년마다 알찬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교육문제창작회 글 / 최미숙 그림/값 4,000원

### 도서출판 산하

서울시 마포구 아현2동 338-10  
 TEL 392-7641 FAX 313-2582